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살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발행처: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가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33호 현대불교  
2009년 5월 27일(음력 5월 4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 어서 하루바삐 깨쳐서 여러분이 훨훨 날아 보십시오

(지난 호에 이어서)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종이 떨어진 것을 주워 봐라." 하셨더라오. 주워 보니까 향내가 나는 향 찢던 종이더라오. 또 가시다가 "새끼오라지를 주워 봐라." 하시더라오. 그래서 새끼오라지를 주워 보니까 생선 튀었던 새끼오라지더라오. 그러니까 씩은 비린내가 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씩은 새끼오라지 냄새를 맡으니 어떨까?" "씩은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지금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초보신자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사람을 나쁘게 하거나, 또는 싸움을 하거나 피비린내가 나게끔 한다면 이 새끼오라지와 같은 거니라. 그리고 향 찢던 종이는 모든 친구들과 서로 의합하게, 서로 이해하고 또 나쁘고 좋은 것을 알아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 몸뚱이를 잘 이끌고 가는 데에 의해서 그 모든 향음이 전부 두루 하느니라. 그래서 배고프지 않고 헐벗지 않고, 또는 집 없는 데서 자거나 하는 법이 없느니라. 향음이 가득 차 있고 꽃이 만발했구나." 라고 하셨답니다. 꽃이 만발했다 하는 것은,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무궁화꽃 위애다가 햇살을 세워 놓고 저저 해 봤죠? 비둘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연꽃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건데 부처님만을 상징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떨어질 것도 없죠. 그와 같이 연꽃으로 상징했지만 나라를 비유할 때는 무궁화꽃으로 하죠. 무궁화꽃이든지 연꽃이든지 다 한 마음에서 나가는 겁니다. 불가에서 아침 첫승에 '오종대는 명심불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왕의 은혜, 세상 국민의 은혜, 사장(師長)의 은혜, 또는 지수화공의 은혜, 만물만생의 은혜,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 모두 은혜 아닌 게 없죠. 길을 뚫고 다니는 것도 은혜요 물을 마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불이 없으면 못 사니까 불의 은혜, 바람 공기의 은혜, 날아 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 모두가 은혜를 배풀지 않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와 모두 같이 공생하고 공용하면서 공제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바로 우리가 나라를 상징해서 무궁화꽃 위애다가 놓은 것은 마음의 꽃을 말합니다. 즉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우리 가정, 사회 모두 들어갑니다. 모든 은혜가 전부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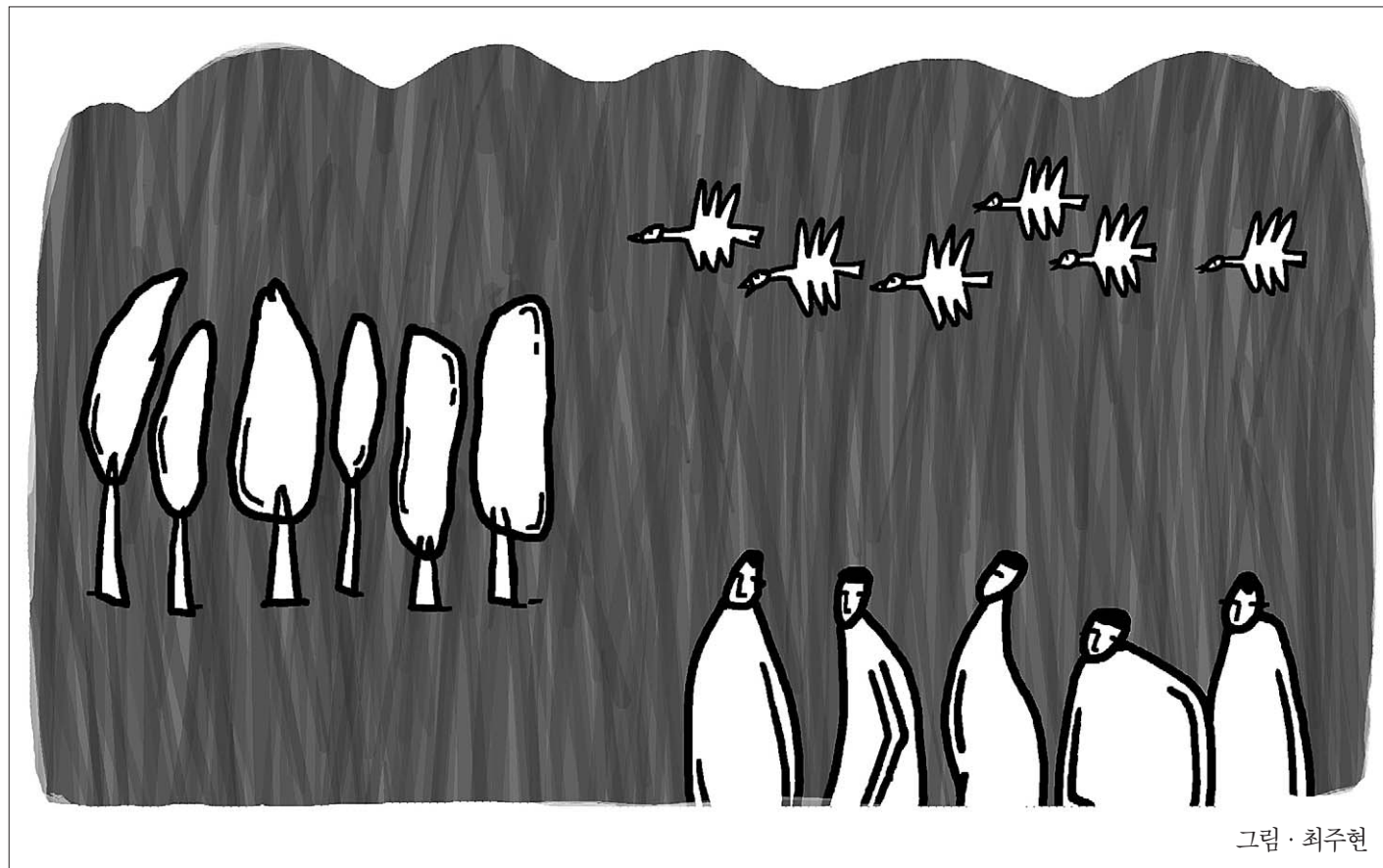


그림 · 최추헌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마음의 꽃이란 애 겁니다. 마음이라는 건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생각을 일으키는 게 불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일으키는 게 불인데 비둘기가 서로 입을 대고 있죠? 그거는 바로 상대성 원리입니다. 만약에 나 하나가 이 세상에 살려고 그러면 살아집니까? 생명이든 똑같이 공생이요, 마음은 다 똑같이 공생이요, 몸뚱이는 다 똑같은 물질이니까 공제요. 이게 전부 같이 들어가면서 주고받고 먹는 거기 때문에 공시화하고 돌아간다는 얘기죠.

희망이 있으면 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고 그렇듯이 직원이거나 사장이거나 똑같이 평등한 겁니다. 높은 산은 낮은 산이 있기 때문에 높지 않은 산이 없었다면 높이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거나 높은 거나, 직원이거나 사장이거나 다 평등한 겁니다. 사장이 없어도 아니 되고 직원이 없어도 아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진리가 전체를 상징한 겁니다.

마음이 있다고 그래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과 돌을 잡고선 탁 치면 거기서 불이 번쩍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불을 켜고 살았죠? 부싯돌이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전기가, 돌아가는 원리가 그렇단 얘깁니다.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올 수 없고 인연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될 수가 없죠. 만물이 없는 데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그래서 인연의 법칙은 그대로 발전의 원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신계와 육신계가 그냥 합일해서 상응하고 작용하고 돌아간다면 큰일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넓히고 넓혀서 생각을 내야 되겠죠. 넓히는 데는 마음은 체가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고, 체가 없는 나가 체가 있는 나를 풀고 다닌다는 그 믿음을 꼭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소크라테스도 "너부터 알아"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듯이 사대 성인들이 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서 세상을 알아." 그랬거든요. 자기를 모른다면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남에게 길을 리드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 너부터 알고 나부터 믿고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현실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더 생각해 보고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상징으로 무궁화꽃이든 햇살을 해 놓고, 햇살 위애다가 서로 입을 대고 있는 비둘기를 해 봤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즉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이 세상 모두 같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같이 상응을 해야 발전도 하고 창조력도 기르고 창조도 할 수 있습니다. 과학도 물리학도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지 마음 떠나서는 없습니다. 생활이 그냥 과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과학입니다. 과학이든 철학이든 어떠한 거든지, 마음의 한 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한 점!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

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마음의 한 점은 우주를 싸고도, 바로 삼천대천세계를 싸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떡 하나를 놓고 이 세상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되남았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타의에서 구하는 것은 다 공덕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정신계를 떠나서는 절대로 성공을 못합니다. 그리고 세세생생에 잡초라면 잡초끼리 만나는 것이고, 금이라면 금끼리 만나는 것이고, 남마라면 남마끼리 만나고 모이게 됩니다.

이 세상 이치를 잘 보십시오. 강푹이면 강푹끼리 모이고 그러듯이 인간도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모이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모이고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점에 가 보십시오. 사과와 사과대로 놓고 배는 배대로 놓고 채소는 채소대로 놔둡니다. 그거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일거일종 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데서도 마음의 차원으로, 차원이 1차원인 1차원대로 모이고 2차원은 2차원대로 모입니다. 새들은 새대로 모이고 인간은 인간대로 모이고, 짐승은 짐승대로 모이고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모이고, 삼라만상의 모든 생물이 다 끼리끼리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한 가지를 잘 쓰면, 주인공에 맞고도 잘 다스리면 차원이 그렇게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즉 평등공법으로서의 자유권을 얻을 수 있고 수레공법으로서 자유자재할 수 있는, 중용을 할 수 있는 묘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상징으로 해 놓은 것은 마음의 아름다움, 아름다운 마음을 한생각 내면 불이요, 불이 일어나게 되면 사방에 모든 세상을,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그 불바퀴와 같으니가 모두가 같이 중용을 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천지를 한마음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천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내 몸뚱이를 숨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땃땃하게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알 바가 있을 겁니다. 마음의 도리를 공부한다면 마음은 이 세상 어디고, 수억겁이 걸리는 먼 데도 한참입니다. 암흑 속에서 지수화공이 한데 합쳐서 광(光)이 일어나

26면으로 계속

##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몽 -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계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원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 체내 노폐물이 빠져도,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는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 부처님의 수행방법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 미안마 파육센터 우레와따 사야도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봉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본불교에 입각한 교리강좌와 수행지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레와따 사야도 초청 집중 수행

수행일정 : 1차 2009년 6월 1일 ~ 6월 7일  
2차 2009년 6월 8일 ~ 6월 14일  
3차 2009년 6월 15일 ~ 6월 21일  
4차 2009년 6월 22일 ~ 6월 28일

입실시간 : 오후 5시 까지, 장기수행 가능  
준비물 : 편안한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 개인장  
장 소 : 봉인사 한길정진원

### 외부 특별 법문

일 시 : 6월 20일 (토) 오전 10시~11시  
장 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 사미타 위빠싸나 명상 (진경스님 지도)

일 시 : 2009년 6월 6일 (토) 2시~6시까지  
장 소 : 전국 비구니회관 (법통사) 02-3411-8103

### 장기수행도 가능 <언제나 수행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 봉인사 한길정진원 031)574-5585  
www.bonginsa.net

